KLPGA로 본 '부익부 빈익빈' 골프 생태계

하위권 선수는 생존 문제…'상금요율' 만지작

작년 상금왕 12억·평균 1억8363만원
1억원 미만 58명…8명은 1000만원↓
코로나 확산에 상금요율 18%로 낮춰
컷 기준 완화 등 투어 상향평준화 기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상금순위는 '시즌 전체 대회 수의 30% 이상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시즌 KLPGA 총 대회 수는 30개. 9개 대회 이상에 참가해야 상금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말이다. 2019시즌 상금 1위는 12억716만원을 벌어들인 최혜진(롯데). 27개 대회에 나서 컷 탈락 없이 27번 모두 상금을 받았다.

●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는 격차

지난해 상금순위 산정 기준을 충족한 선수는 총 120명으로 이들의 평균 상금 수령액은 1억8363만 원이었다. 평균을 넘는 선수는 33명이고, 1억 원 이상의 상금을 챙긴 선수는 62명으로 50%를 조금 넘는다. 그러나 반대로 1억 원 미만의 상금을 받은 선수가 58명이었다. 상금이 3000만 원이 안 되는 선수는 19명에 이르고, 8명은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장 적은 상금을 받은 선수는 13개 대회(1번 상금수령)에 출전해 고작 225만 원만을 챙겼을 뿐이다. 평균은 1억8363만 원이지만, 격차가 제법 크다는 말이다.

상금을 받으면 선수는 세금을 낸다. 우승자도, 컷을 가까스로 통과한 선수도 마찬가지다. 소득세 3%, 주민세 0.3%, 특별회비 6% 등 총 9.3%를 공제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 대회당 일정 참가비(14만 3000원)를 내야하고 대개 주급으로 지급하는 캐디 보수와 이동, 숙박 등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대개 1년 투어를 뛰기 위해서는 훈련비용을 포함해 적어도 1억 원, 평균 1억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 대부분 선수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정규투어를 뛰는 셈이다.

● 상금요율에 주목하는 이유

KLPGA의 현 상금 분배율 규정(예선 통과 인원 60명 기준)은 총상금 12억 원 미만일 경우 우승상금 20%, 12억 원 이상일 경우 우승상금을 25%로 정해 놓고 있다. 우승상금 20% 대회의 경우 상위 5명이 총상금의 48.5%, 나머지 55명이 51.5%를 나눠 갖는다. 60등은 총 상금의 0.5%를 가져간다. 10억 원 총 상금 대회의 경우 60위를 했다고 하면 상금이 500만 원이란 얘기다.

올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회가 축소되며 선수 수입이 줄어들자 KLPGA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 스폰서가 동의할 경우 우승상금 비율을 18%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는 스폰서의 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18%로 내리기로 했다.

우승상금을 18%로 조정한 안을 보면, 상위 5명에게 돌아가는 몫이 46%로 줄어든다. 나머지 55명이 54%를 나눠 갖게 되고, 60위의 경우 0.55%를 가져가게 된다. '상후하박'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위권이 가져가는 몫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상금 요율을 변경한 대회는 컷오프 인원도 확대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4대 메이저 등 일반 대회의 우승 상금 역시 총상금의 18%다.

우승 상금 비율을 낮추고, 컷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KLPGA 투어 출신의 한 전직 프로선수는 "어차피 상위권 선수들은 조금 덜 받아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하위권 선수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특히 투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하위권 선수들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무서운 10대' 김주형, 군산CC오픈 1R 공동2위

KPGA 개막전 준우승 이어 컨디션 굿
"적응력 문제없어…나의 플레이 집중"


김주형

군산에서도 '무서운 10대 돌풍'이 불고 있다.

김주형(18·CJ대한통운)은 9일 전북 군산CC 리드·레이크코스(파71)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LPGA) 코리안투어 'KPGA 군산CC오픈'(총상금 5억 원)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인코스에서 출발해 10번 홀과 12번 홀(이상 파4)에서 각각 버디를 기록한 뒤 1번 홀(파4)에서 보기로 주춤했지만 4번(파4), 5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7번(파4), 8번(파3), 9번 홀(파5)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좋게 첫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8번 홀에서는 벙커에서 친 세컨 샷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했다.

KPGA 코리안투어 시즌 개막전이었던 지난 주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김주형은 자신의 국내무대 두 번째 대회에서도 첫 날 선두 박은신(7언더파)에 1타 차 뒤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무서운 10대'임을 재차 입증했다. "대체적으로 안정된 하루였다. 티샷도 페어웨이를 잘 지켰고 아이언샷 감도 괜찮아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는 "연습라운드에서 퍼트가 잘 안돼 새로운 퍼트로 바꾸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터치감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군산CC 라운드 경험이 별로 없음에도 1라운드 성적이 잘 나온 것에 대해 "새로운 코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한 그는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오직 나만의 플레이에만 집중한다. 경기 외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1라운드 성적이 좋으면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하곤 했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덧붙인 뒤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헌 기자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챔피언 나야 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0시즌 9번째 대회인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이 10일부터 사흘간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스톤게이트CC(파72)에서 펼쳐진다. 올해 신설된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은 3라운드로 진행되지만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이 걸려 있는 '메이저급 대회'다.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공식 포토콜 행사에서 이보미, 김효주, 김세영, 최혜진(왼쪽부터)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미·유럽 대항전 라이더컵, 2021년으로 연기

미국남자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와 라이더컵 유럽은 9일(한국시간) "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휘슬링 스트레이츠 골프 코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라이더컵을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언론은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에 대해 일찌감치 예고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가가 유력한 선수들은 이 대회가 무관중 대회로 열리는 것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세스 워 PGA 최고경영자는 "9월에 수 천 명의 관중들과 라이더컵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없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H1클럽, 새 단장 마치고 재오픈

호반그룹은 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H1클럽(에이치원클럽)'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오픈했다고 밝혔다. 1986년에 개장한 기존 덕평CC의 코스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전면 리노베이션해 새로 선보인 H1클럽은 대덕산 줄기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기존 코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홀과 홀 사이를 넓게 구성해 플레이어로 하여금 마치 숲 속에 있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그늘 집과 VIP 라커룸을 새로 만들고, 로비와 사우나 시설을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김성호, MFS드림필드 미니투어 4차 우승

김성호(22)가 8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GC 라고 코스(파72)에서 열린 MFS드림필드 미니투어 4차 대회에서 전, 후반 각각 4타씩 줄여 64타로 우승을 따냈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KPGA 오픈(16~19일·솔라고GC)에 추천 선수로 이름을 올린 김성호는 "오는 16일 KPGA오픈이 열리는 코스에서 우승해 너무 기쁘다. 코리안투어에 추천 선수로 참가하게 됐는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대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MFS드림필드 미니투어는 남녀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까지 기량을 점검하고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대회다. 후원사를 찾지 못해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리앤브라더스(대표 이평엽)가 MFS와 손잡고 재개했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밴드 '드림필드 미니투어'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도헌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홍익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개, 고양이)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 / 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아!
썩을 때로 썩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아!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39세까지) 왈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 인류, 반려동물까지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의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렛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자본공유앱APP
□ 자동릴레이기부 품앗이계


하이,우분투(주)
대표전화 1644 - 6733
Hiubuntu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종교재단" 등극 !!!
● 고문단 최성규 목사 / 엄신형 목사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사 총괄전도사 쫀쫀 류창열 된장
● 서울 쫀쫀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인조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영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강신오 010-2209-1142 / 이순지 010-9725-2789 / 최득남 010-5661-4167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이채영 010-7135-2369 / 백삼석 010-7309-1000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완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정 010-7712-2202 / 김용한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60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배 010-3572-4616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 1888 ● 이천 허천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중국 송동욱 010-429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